
2000年度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公務員教育院

日時 2000年6月21日(水) 午後2時

場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4時 05分 監査開始)

○委員長 呂鼎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地方自治法 제36조제5항 및 同法施行令 제17조의4제5항,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 제 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宣 誓)

○委員長 呂鼎九; 공무원교육원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의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한 후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안녕하십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呂鼎九 委員長님과 行政自治委員會 委員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금년도 교육목표를 새해 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성에 두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희 교육원에서는 원장 이하 전 직원이 이의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실히 준비하느라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教育企劃課長 崔鍾協, 教育運營課長 張文學)

저희 교육원에는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 세 명의 팀장이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지 못한 세 명에 대해서 지금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泳基 教育企劃課 企劃2팀장입니다. 鄭學朝 管理팀장입니다. 그리고 金東碩 銓衡팀장이 있는데, 이번 6월 24일 기술직 5급 승진시험 편집으로 격리된 전형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

(報告)

公務員教育院 業務報告

(뒤에 실음)

.....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鼎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忠敏 委員 질의하십시오.

○崔忠敏 委員;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죽 훑어보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자료가 대단히 충실한 자료였다고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 중점과제를 보니까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정보습득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적자원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가능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우리 교육공무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고급관리자 과정에서, 이 자료가 언제 나온 자료입니까? 교육훈련 종합평가, 이 자료 언제 만들었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만들었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래서 그랬군요.

교육과정에서 보니까, 보고서 11쪽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육성과, 교육생에 도움이 된다 100%, 제가 보았을 때 4급 일반직 공무원들은 1회 10명 100% 다 참석했고, 공직자 윤리확립과 전인적 품성배양, 다 좋습니다. 4급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 교육동기, 교육과정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했겠죠, 의식변화에 대해서도? 그런데 교육성과가 도움이 되었다, 100% 나왔고 교육만족도도 100%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교재 내용에 있어서도 만족이 33% 나왔는데

이렇게 100% 나올 수 있습니까? 10명이니까 10명 다 만족한다는 겁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다섯 가지로 합니다. 아주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그래서 아주 좋다는 것과 좋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보통과 불만인 쪽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崔忠敏 委員; 10명이고 적은 숫자니까 100%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고급과정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한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했는데 金大中大統領께서 방북 갔다 와서 정상회담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 64페이지 끝머리에 EXCEL 고급과정에다 끼워 가지고 통일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정세의 변환, 공무원의 통일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교육을 한번 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아주 고마운 말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崔忠敏 委員;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강사선정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강사선정위원회의 이분들이 모든 강사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강사선정위원회에서 풀로는 전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교육 들어갈 때는 그 풀에 있는 강사님들이 해외에 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업무로 인해서 강사를 못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 이하 전임교수 두 분, 과장 두 분, 그리고 관계된 팀장 5~6명 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강사선정

위원회를 따로 엽니다. 한 달치씩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우리가 모셔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수님이 어느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선정위원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풀 명단을 작성할 때 하는 것입니다.

○崔忠敏 委員; 왜 그런고 하니 강사선정위원회를 보니까 이분들이 전적으로 강사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 계획표에 보면 비서과장이 있는데 이 비서과장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에 비서과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 비서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 강사랄까 교수님들,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강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인위적으로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다, 또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 버린다면 전공한 교수들에 비해 전공성이 떨어지겠고 효율성·효과성·능률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로베이스라고 나왔는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존의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하겠지만 비서학과라는 특수한 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유대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금년 3월에 비서과정을 운영했는데 강사님들 모신 것은 비서과정이 잘 돼 있는 데가 이화여자대학입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의 비서학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기업체에 친절교육 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모셔서 비서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도 좋았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는데 내년도 교육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인사과에서 비서교육과정은 내년에 하지 말아 달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본즉, 그 비서들이 상사를 모시고 시간을 그렇게 낼 수 없는데 일주일씩 빼가지고 교육을 하니깐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OJT교육으로, 직장교육으로 비서교육을 시킬 테니까 비서교육은 내년에는 빼달라 하는 것이 현재.....

○崔忠敏 委員; 교육 끝나고 여론조사해 보니까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아니 상사가 불편하다는 겁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그렇죠.

○崔忠敏 委員; 비서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상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구히 서울시를 위해서 상사를 잘 모실 수 있다고 그러면 교육 일주일 시키는 게 더 낫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조직이 아무래도 불편하게 되니까 조직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집합교육 일주일씩 하는 것은 지양하고 OJT교육, 직장교육으로 자주 할 테니까.....

○崔忠敏 委員; 그런데 직장교육은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력이라고 할까, 교육을 받는 자세가 떨어지지 않아요? 다 아시는 분이 와서 교육시키고 같은 직장내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정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연수 간다 하면 연수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당에서 친절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연수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는 것은 어떤 자세라고 할까, 기본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보니까 고위정책과정에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한반도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주로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해서 어느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합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작년에는 박건우 대사님을 모셔다가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하용출 교수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있는 교육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고맙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육과정이 있는데 친절봉사 및 이런 것이 형식적인 것 아닐까요?

주·정차 단속 처리요원 이런 게 전부 교통분야 근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외부인사 참석인원 28명 중 외부인사 10명, 공무원 11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은 7명밖에 안 돼요.

공익근무요원 교육과정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돼 버렸는데, 그리고 교육과정이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친절봉사, 주·정차 단속요령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복장 같은 것 보면 형편없는 불량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정확성 있고 세부적으로 조금만 적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참고하겠습니다.

○崔忠敏 委員; 그 다음에 교육과정별 운영평가에 있어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교육을 7급 이하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실무능력배양 교육과목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 정보화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전산교육을 따로 파트별로 분류시켜서 정보화시대 교육은 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보화 시대는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인데 교육과목 편성기준에 보니까 소양 43%, 직무 34%, 전산 18%, 기타 17%인데 이 교육이 쉽게 말하면 정보화시대 구축을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전산교육을 강화시키는 교육인지, 기초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99.9% 시킨다든지, 아니면 직무교육에 대한 전산교육을 확실히 시킨다든지 파트별로 정확한 세부적인 교육을 나눠야 되는 것인지, 어정쩡한 교육이 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산교육을 시키려면 확실히 공무원 전산교육을 시키든지, 그러면 전산교육에 대해서 100% 정보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지금 신규 채용자는 처음 공무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백지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서울시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서울시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소양,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되는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崔忠敏 委員; 법은 법제교육 같은 실무교육이 있던데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선택전문과정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규채용자과정으로, 그래서 전산교육을 최소한도, 지금 18시간이 적기는 합니다.

崔委員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색
깔있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18%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최소한도 워드 치고 공문 발송하고 있는 그
러한 기초지식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崔忠敏 委員; 우리 의원님들도 노트북 가지고 다 컴퓨터 배
웠는데 지금 공무원 7급, 9급 들어오려면 워드 같은 것은 기
본적입니다.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컴퓨터 워드
같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산교육 18% 시켜가지고 효과성이 떨어
지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 전산교육은 최소한도 프로그램
짜고 만들 정도는 돼야 공무원 정도 실력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한 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연수에서 교통, 청소, 상하수도, 도시환경 연수과제 부
여한다고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것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연수방법에 있어서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급정보를 습득해야 되는데 교통이나 청소,
상하수도, 도시환경 가지고는 정보화시대에 되지 않는다, 차
라리 공산화에서 이데올로기를 공부해 가지고 온다든지 남북
정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게 더 낫지 사실 교
통 같은 데 딱 정해 졌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가
서 청소하는 것을 어디에서 뭘 배워 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물론, 자기 소관부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막연하게 소그룹으로
편성해서 교통, 청소, 상하수도, 도시환경 이것을 연수해서
과제물 부여한다는 것은 고급 정보화시대 세계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큰 학습효과는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
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 보니까 제가 처음 서울시議會에 와서 공무원 생활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따진 적이 있는데 감점사유, 감점기준이 돼 있는데 사실 퇴교처분 후 소속 기관에 통보조치 요구한 건수가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없습니다.

○崔忠敏 委員; 제가 그래서 사실 서울시議會에 당선되고 나서 公務員教育院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당시 公務員教育院長한테 큰 소리로 생활지도에 있어서 한 사람도 퇴교조치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라, 제가 보니까 公務員教育院 생긴 이래 한 사람도 퇴교조치된 분이 없다, 이것은 내가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해서라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감점사유 그것도 막연하겠는데 무단지각 감점 0.5, 사실 무단지각은 사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시 정각에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9시 정각까지 오지 않은 사람은 출석부 쓴 것을 바로 운영과에서 걷어갔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 감점이 됩니다.

○崔忠敏 委員; 예를 들어서 낙서행위나 담배꽂초 같은 이런 것을 누가 감시감독 합니까? 하기가 힘들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설 수 있는 곳을 한정해 놓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을 바깥에 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지 않고 질서를 잘 지켜 주고 있습니다.

○崔忠敏 委員; 좀 현실성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여하튼 제가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

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신지식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많은 공무원 교육원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근무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鼎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韓春子 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韓春子 委員; 韓春子 委員입니다.

92면에 보면 99년도 공무원교육원 훈련종합평가 분석자료에 의하면 기본교육과정에서 99년도에는 79점 이하 저득점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점 이상 고득점자는 97년에는 94.4%, 98년에는 96.4%, 99년에는 100%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정별 평균성적이 보건환경기술과정2에서는 96.8점, 기술일반과정 3기가 85.3점으로 편차가 너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가문제의 난이도나 변별력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며, 과정별 기수별 평균점수의 편차가 심한 것은 성적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과정별로 교육 종료시 교육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성적을 산출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최근에 교육성적이 불량하여 교육과정을 미이수 처리하거나 재교육시킨 사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韓委員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성적관리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미이수해서 다시 교육한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성적은 시험출제를 교수님들한테 의뢰해서 거기에 상·중·하로 어려운 것, 보통, 아주 쉬운 것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할 때 전반기 또는 작년 것 이런 것과 전부 균형을 이루도록 출제를 하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할 때는 좀 높아지는 수도 있고, 또 어느 기는 관심을 덜 두는 그런 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적이 다소 떨어지기도 하는데 간호직은 간호직대로, 일반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세무직은 세무직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그 직종간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만 예를 들면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94.5점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89.5 내지 90점, 중견과정 행정직은 한 89점 내지 90점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승진할 때 행정직과 간호직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같은 직종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점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한히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차가 생겨서 저희들도 교육생들한테도 미안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韓春子 委員; 왜냐 하면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난이도를 평이하게 한다거나 평가항목을 단순하게 선정해서 교육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을 승진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통과 의례로써 전락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

훈련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원 운영과 성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공무원 직급별 교육훈련실적을 보면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은 164명으로서 전체 교육 이수공무원 1만 6,902명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기 교육 10명을 제외하면 기타교육이 153명이 되는데 기타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기타교육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교육과정은 시책교육과정하고 소양교육과정, 공익근무요원과정을 저희들이 기타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교육과정 중에서 시책교육은 고위정책과정, 그리고 정책관리자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고, 소양교육은 별정직 소양과정, 신규채용자·기능직소양과정, 6급승진자과정, 사회복지요원 특별소양과정, 이렇게 네 과정 이런 것들이 기타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韓春子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 전체에 비해서 이수공무원 교육훈련실적이 미비한 것 같아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이것은 소양과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민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특별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공통전문과정이나 선택전문과정에서 1주 또는 2주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은 사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타교육으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韓春子 委員;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재교육이 소홀한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대단히 고맙습니다.

○韓春子 委員;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설문조사 결과 건의 및 조치사항을 보면 건의사항 총 140건 중 교과목조정 61건, 교육운영 32건, 시설기자재 45건으로 나타나 교육원 운영에 개선할 점이 어느 방향인지 제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는 얼마나 반영되어 개선하고 있는지, 금년도의 설문조사 결과 건의 및 조치사항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하신 370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 건의사항이 145건인데 그 중에서 교과목 조정이 42%, 교육운영개선이 22%, 시설기자재 보완과 확충이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을 금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 금년 5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만족도에 대한 사항은 교육성과만족이 85.5%, 교육과정 만족이 84.6%, 99년도에 비해서 교과편성과정 만족이 6.9% 정도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자료 해 드렸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 시설이 20년 되고 보니까 의자도 체형에 비해서 작고,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해서 형광등도 밝지 않아서 금년에 전부 형광등세척작업을 다 다시 갈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두운 면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생활관이라든지 부족한 시설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하고 처리부에 있는 것처럼 결재란을 빼고서 복사를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교육생들한테 희망사항, 요구사항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春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가리셔서 진짜 어려운 시설 속에서 교육을 시키기 어려우시다면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셔서 교육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鼎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永俊 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永俊 委員; 교육원장을 위시한 전 직원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원장,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서 주요 시험추진내용에서 2000년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23개 직종에 285명 선발에서 평균경쟁률 120.6 대 1에 3만 4,380명이 응시를 했는데 교육원장으로서, 서울시 공무원 대선배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현재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국가 고용정책적인 그러한 측면하고 그리고 공무원을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보는 여러 가지 관점, 또 공무원의 신분보장,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많은 인재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은 보다 더 훌륭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전국의 모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

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자원을 뽑아서 서울시 발전에 큰 보탬과 또 기둥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永俊 委員; 좋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우리 교육원장뿐 아니라 전 공무원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120대 1이면 285명의 단순평균치 120 대 1이 아니고, 285명의 꼴등 285등으로 들어올 때 3만 4,380명이니까 약 3만 4천 한 100명인가 50명을 떨쳐야 돼, 전부 대학 나온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곳이 서울시 공무원이고 현재 대한민국 공직자 풍토예요.

그것을 교육기관에 있는 교육원장은 물론이고 그 밑의 과장, 그 밑의 사무관, 각성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교육을 한다, 이런 기분에서 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번째 우리 동료위원인 崔忠敏 委員이 좀 전에 물었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간판 붙인 역사 이래 퇴교당한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고 대답을 했는데 南相宇 院長, 없었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제가 교육원장 한 후로는 없었다는 말씀이지, 그 전의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金永俊 委員; 서울시 공무원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을 받으러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승진을 하려면 단 1점, 0.1점을 더 받기 위해서 요즘 모기가 물더라도 밤을 새고 공부를 해. 이런 것이 엇그제요.

그때 기마다 퇴교당한 사람이 몇 % 다 있었어. 없었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최근에는 없습니다.

○金永俊 委員; 최근에는 없었더라도 그 전에는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방침이 어떨지 모르는데 우선 서울시 公務員教育院長으로서, 또 공무원 선배로서 복잡다단한 서울시 행정을 걸머질 공무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는 퇴교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교육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金永俊 委員; 왜 그러느냐, 실력과 능력과 자질이 없으면 관둬야죠.

아까 사이버니 뭐니 얘기 했잖아요. 자질과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손이나 비비고 몇 %의 돈이 있어가지고 특채로 들어와서 사고나 저지르고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 서울시에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조국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퇴교조치 연구하세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金永俊 委員; 당연히 점수에 미달되면 퇴교해서 다음에 또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묻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출장교육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원장께서 그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발상에서 근무지 출장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그것은 지금 교육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니까 대단히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수요는 있지만 교육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보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출장계획을 하고 또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또 그것이 처리기한이 있고 그러니까 상사들께서 바로 직원을 불러가지고 업무를 주고 하니까 교육중에 또 업무를 처리하고 하다 보니 교육이 다소 불만스럽게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번에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 두 번을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俊 委員;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議會는 집행부에서 잘 못할 때, 조금 미흡할 때 議會에서 소위 활력소를, 원활유를 주는 것이 우리 議會와 집행부의 자세 내지는 나아가야 할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議會에서 본위원은 책임을 지고 公務員敎育院의 입장을 공감해서 그것을 반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고맙습니다.

○金永俊 委員; 그리고 내가 볼 때 敎育院장의 지위는, 敎育院장의 직무상 위치는 비록 서울市長 밑에 있는 보조기관에 있다 하더라도 엄격히 그 내면적인 입법취지는 독립기관입니다.

敎育企劃課長인 崔課長, 전에 어디 있다가 왔어요?

○敎育企劃課長 崔鍾協; 江北區廳 行政管理局長으로 있었습니다.

○金永俊 委員; 또 주무계장은 어디 있다고 왔어요?

○企劃1팀長 崔瑢煥; 農水産流通課 農水産流通企劃팀長으로 있었습니다.

○金永俊 委員; 알았어요.

그런 공직기관의 위치에 있다고 봤을 때, 좀전에 보고 당시 비서교육이 있는데 비서를 교육시키니까 비서를 데리고 있는 局長 내지는 市長, 副市長들이 불편하니까 못한다, 그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바로 이런 사항을 주무 상임위원회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위원님.....

○金永俊 委員; 비서도 하나의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자질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南相宇 敎育院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이 비서과정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조직 전체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OJT교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퇴근시간 후에 시청 회의실에 집합시켜 놓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직장교육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도 우리 상관들의 불편함 때문에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서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서과정의 대상자들은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 있는 비서들은 대상이 안 됐고 실·국장실에 있는 비서, 그리고 각 구청의 부구청장과 실·국장실에 있는 그러한 비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입니다.

○金永俊 委員;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157페이지, 99년 이후 신규채용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적을 자치구를 포함해서 자료를 내 주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9년 2회에 걸쳐서 4개 직종 121명의 기능직을 선발했는데 그때 교육을 못한 것은 여기 기재한 대로 보면 임용이 늦어져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그렇습니다.

○金永俊 委員; 그래서 금년도 기능직 공무원 11명과 합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지금 했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金永俊 委員;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기능직 공무원일수록 교육을 더 받아야 돼.

왜 그러느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범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공무원이라는 자질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예컨대, 건축직이 집을 짓기 위해서, 토목직이 굴을 뚫기 위해서, 약무직이 약을 짓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최소한도 특별권력관계, 국가와 계약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소위 시민에게, 국민에게, 같은 동료에게, 공무원집단의 조직인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소양교육이 극히 필요한데 아까 교육원장 보고내용대로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행정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 행정법정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험, 재작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 빠졌습니다.

○金永俊 委員; 기술직에서?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기술직도 빠지고 행정직에서도 그렇습니다. 行政自治部에서부터 다 빠져가고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행정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행정행위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金永俊 委員; 오늘 참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지만 앞으로 시험은 그것을 넣도록, 그것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법을 모르는 공무원이 들어와서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高建 市長님도 사인할 것으로 믿고 담당국장인 行政管理局長도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 있는 대다수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 지금 믿고 있을 것인데, 행정법이 다 빠졌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임용시험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교육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金永俊 委員;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교육과정에서 교육과목에 안보교육 내지 보안교육 내용이 있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2주 짜리는 2시간씩 다 들어 있습니다.

○金永俊 委員; 일례를 들면 한반도 동북아 정세교육, 보안교육, 안보교육.....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비상대비교육.....

○金永俊 委員; 통일 무슨 교육.....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그런 보다 차원높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보안과 비상대비교육, 그리고 4

급이라든지 1·3급 고위정책과정, 이런 데 과정만 보다 차원높은 동북아 정세라든지 세계국제정세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金永俊 委員; 이런 교육은 없습니까? 김일성 두드려 잡는 교육, 공산 반공교육 그런 것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없습니다.

○金永俊 委員;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보안교육, 안보교육, 통일교육, 이 교육이 지금 전부 바뀌었는데 옛날 강사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엇그저께 같은 민족이고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고 같은 땅이고 같은 동족인데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교육원장으로서 일을 잘 하시는데 원장, 지난번에 한 달 전 내지 두 달 전 누구도 다 봤을 텐데 공무원 봉급 올린다는 얘기 들었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신문에서 봤습니다.

○金永俊 委員; 국영 기업체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런 것이 나오면 바로 거기는 공무원들의 교육집단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해 줘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달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은 그런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金永俊 委員; 물론 아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최소한도 理事官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조국을 위해서 국가시책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기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없는 돈을 올려줘 가지고, 봉급을 올려준다는데 비록 시달됐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 시책이니까 교육원장은 아침에 간부들 회의시 이 부분을 얘기해 주라고.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까?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도 시방 부족하고 빛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다는 얘기하느냐.....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과장하고 팀장하고 내부 회의에서는 논의도 합니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하기는 곤란합니다.

○金永俊 委員; 그런데 그 발상이 틀립니다. 내가 만약 강의를 하러 갔다면, 교육원장이 같이 갔다면 지금 최과장이나 장과장이 갔다면 오늘 신문 봤어요,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 대단히 환영하고, 공무원 봉급을 올려준다는데 기분 좋습니까, 이렇게.....

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법이. 법의 해석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강사료입니까, 차비입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金永俊 委員; 아, 공무원에게도? 얼마씩 지급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강사료는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데 내부강사나 일반강사나 마찬가지로 시간당 기본 7만원에 3만원씩.....

○金永俊 委員; 그것이 언제부터예요? 옛날에는 공무원들한테 지급 안했잖아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교관들은 강의를 해도 수당 강사료 지급이 안 되고,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사람이 아닌 서울시 본청이나 또는 구

청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강의를 했을 때는 옛날부터 즉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계속 지급해 왔었고, 오히려 옛날에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교관들도 강의를 하면 강사료를 주었었는데…….

○金永俊 委員; 그 전에는 안 준 것 같은데?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아닙니다.

○金永俊 委員; 그 전에 주었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주었고,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金永俊 委員; 그러면 할 수 없죠.

단, 본위원이 우리 교육원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상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알아야 되겠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신과 철학이 더 있어야 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국가시책이 있는데 시달되지 않은 공문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鼎九;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38分 監查中止)

(16時 03分 監查繼續)

○委員長 呂鼎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로가 좀

풀리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金光洙 委員 질의하십시오.

○金光洙 委員; 金光洙 委員입니다.

여러 가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과정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南相宇 院長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 대한 노고를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치하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했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년대계라고 했어요.

백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과정과 인원이 편성되어 있고 아울러서 과정별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의 과목편성은 공통사항이 있고, 또 전문분야별 전문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공통사항은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또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도 행정의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자세라든가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질과 자격, 그리고 당면과제 이런 것들을 망라한 모든 전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교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金光洙 委員; 그런데 공통과목을 보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한 가지만 되어 있어요. 친절과 봉사 이 과목만 되어 있는데 여기 교과내용을 보면 직장인의 예절, 대화 및 설득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도 서울의 행정을 맡고 있는, 또 더구나 21세기에 걸맞는 공직자로서 그런 공직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공통과목을 이런 친절과 봉사라는 단순한 과목 한 가지만 실시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공통과목을 좀더 레벨업 시켜서, 친절과 봉사라는 이런 교과목명 자체도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친절과 봉사는 일종의 안내요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에 가까운 뉘앙스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통과목으로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또 수도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자부심과 긍지, 창의적인 근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목을 좀 레벨업을 시켜서 비중있는 공통과목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중앙정부가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시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뭐냐, 규제개혁이다 하면 그런 규제개혁은 어떤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이란 말입니다. 건설분야만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공통사항이다, 그러면 왜 우리 규제개혁을 해야 되느냐,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이것의 당위성,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지만 이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공통사항은 친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行政自治部 地方公務員教育訓練指針에 일주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친절봉사 교육을 2시간 이상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봉사 과목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국민에게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들한테 지금 金光洙委員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러한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가시책으로 주요한 시책들은 공통과목 속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사정 관계를 다루는 사람이면 노사정 정책에 대해서 노동교육원에서 교수를 모셔다가 이렇게 국가시책과목으로 넣고 또 어떤 때는 저희가 규제개혁도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강철수 시립대학교 교수님을 모셔다가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여기에는 친절봉사만 돼 있지만 중앙정부나 시장님이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그 주에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정은 노사문제, 어느 과정은 환경문제, 환경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올 때는 국가 환경정책,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가 기획예산처의 예산실장과 재정경제부의 정책국장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국가예산정책과 이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 강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金光洙 委員; 그런 것은 전문분야별로 구분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공직자들이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공통적인 당면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민생활에 편의를 최대한도로 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야 된다 등등 전체 공직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총론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고 각론에서는 각 전문분야별로 자세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과 봉사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너무 단조롭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수도 서울의 공무원연수원의 교과 과목으로서는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도 서울 행정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공통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과목은 재편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그것은 총론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고 각론에서 전문분야별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분야별로 틀리잖아요. 그것은 기법교육에서 실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과정이 있는데 교육훈련계획 147페이지 보면 규제개혁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대상이 5급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이것은 교육대상을 좀더 고급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결정권자의 인식전환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은 정말로 우리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이와 같이 국가의 명운이 달린만큼 이 규제개혁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규제개혁의 목적이 뭐니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하위직 공직자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위로는 시장으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할 적에 개혁다운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그렇습니다.

○金光洙 委員; 그래서 이 규제개혁과정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에 관련된 교과과목 편성을 보면 별로 내실 있지 못하다, 대부분 일반론적인 과목내용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과목 운영은 우선 규제개혁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규제개혁의 현실태, 전체 당면 과제죠. 그 다음에 문제점,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문제점이 뭐냐, 어느 부처에서는 5개 개혁을 하면 다른 데서는 6개 만들어 내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성 없는 그런 규제개혁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규제개혁의 목적, 현실태, 문제점, 이와 관련된 개선대책, 이러한 방향으로 교과과목이 편성돼야 되고 아주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준농림지를 무차별하게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니까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한하는 지침을 내려보냈죠? 그것도 일종의 규제개혁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려보내느냐, 준농림지를 형질변경을 해 주긴 해

주되 전 가족이 현지에서 6개월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에게만 형질변경을 해 주겠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디 천막치고 삽니까? 집을 지어놔야 주민등록을 옮길 것 아니에요. 이런 규제는 정반대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짓되, 나중에 와서 살지 않으면 무슨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규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6개월 동안 거주를 해야 형질을 변경해 주고 형질변경을 받고 바로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매매를 해도 아무 법적 규정이 없어. 자꾸만 시민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불법을 자행하게 만드는 이런 규제개혁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맨 땅에 천막 치고 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현실성 있게끔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되 나중에 와서 거주를 하거나, 거주를 안할 경우는 별장으로 해 가지고 중과세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목표가 뭐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겁니다.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기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뭐다, 개선책이 뭐다 이런 방향으로 교과과목을 편성해야 이게 내실있는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총론으로 주마간산격으로 맛만 보게 하는 식으로 해 봤자 시간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과목 편성이라든지 과정편성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돼요. 즉, 교육기관은 뭘니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선도하는 기관이다 이 말이야. 새로

운 지식을 함양시키고 공직자들로 하여금 직무지식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교육기관이 선진화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미래예측을 해야 돼요. 점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대충 어떠 어떠한 양상으로 이것이 전개될 것이다, 금년도부터 연구팀이 들어가야 돼요. 과목별로 어떤 과목을 채택할 것인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벌써부터 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핵심은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을 많은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될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내년 정도에 우리 서울시로 이관될 업무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미리 확인해서 전년도 교육과정에 미리 포함시켜서 교육을 해야 그 업무가 이관되면 무리없이 추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현재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을 짜기 위해서 2월 초부터 각 실.국의 교육담당자들을 모아 놓고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육과정을 내년도에 신설할 것인가,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4개 과정은 폐지를 하는 게 좋겠고.....

○金光洙 委員; 그러니까 과목수요 판단을 하는 얘기인데.....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그리고 7개 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렇게 그런 조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위임되거나 이관되는 업무들을 사전준비 없이 공무원들한테 바로 실시해 버리면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먼저 시킨 다음에 시행에 들어가면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내년도에 교육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 保健福祉部에서 그 업무 시행 전에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집중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위임되는 사항이거나 그런 중요시책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설정하도록 行政自治部에서 교육계획지침을 내려줄 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영을 많이 하는데 다 반영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육준비가 없이 내려와 가지고 혼란을 가져온다거나 시행착오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좋은 뜻을 받들어서 보다 더 연구해서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덜 될 수 있도록 교과목도 짜고 교육과정도 짜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光洙 委員;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개혁과목은 교육대상을 반드시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군의 예를 들면 이러한 관련된 교육은 사단장서부터 교육에 피교육생으로 다 참석해요.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하위직 공무원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여기에 대한 당위성 인식,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가 같이 어울려서 토론도 하고 분위기를 리드하고 위에서는 이렇게 지시하지만 실제 밑에서 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분임토의시간도 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하간에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또 교육의 효과증진과 실무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고맙습니다.

○金光洙 委員; 필히 지금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원 구내식당 생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거기 식당이 있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있습니다.

○金光洙 委員; 현재 수탁자가 주식회사 제일제당입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그렇습니다.

○金光洙 委員; 그런데 주식회사 제일제당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작년 8월에 1년 계약으로 해서 금년 8월 20일까지 합니다.

○金光洙 委員; 그러면 주식회사 제일제당이라는 대기업이 식수인원이 몇 백명 안 되는 식당까지 입찰을 봐서 영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입찰 보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교육생 그리고 교육원 직원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입찰은 의회에서 금년에 2,600원으로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메뉴를 짜고 어떻게 서비스를 더 많이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金光洙 委員;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들을 가능한 육성하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의 무게를 중소기업자들 육성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말입니다.

이것도 조리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려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려면 조리사협회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사업을 하면 제일제당만 못하겠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글쎄요, 저희가 지금 조리사협회의 기능이나 조직이나 그분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장이 답변 올리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金光洙 委員; 그래서 입찰을 할 때는 가능하면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평가제를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제일제당 같은 대기업은 이런 식당 안 맡아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많은 회사예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鼎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政恩 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政恩 委員; 李政恩 委員입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에서 96페이지에 99년도 교육성과 설문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교육의 만족도가 67%이고, 공통교육의 만족도는 70%로서 다른 과정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기본교육과정과 공통전문과정에서 78%로 나타나 다른 과정에 비해서 교육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통전문교육과정은 2주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정에 들어오면 반드시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성적이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성과설문조사에서 나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관적인 의사가 많이 개입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교육이 공통전문과정이나 선택전문과정 불문하고 그야말로 열과 성의를 투입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선택전문과정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설문이 잘 나온 편이고, 공통전문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적이 조금 좋았을 때는 설문이 참 잘 나오고, 시험이 어려우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李政恩 委員; 교과목 편성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과목 편성에 대한 교육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좀 좋으면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을 한다는 건가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그런 영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李政恩 委員;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나요, 공통과목하고 그 과목에 대해서?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그렇습니다.

공통전문과정은 어느 기에서 내용을 바꿔 달라고 해서 소양과목은 바꿀 수가 있지만 기타전문과목은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에서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목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재도 다 썼고요.

○李政恩 委員; 그러나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훈련의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은 교육훈련계획 수립단계로부터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교육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을 연도가 끝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문제점들을 금년에 다 반영해서 교육계획을 짠 것입니다.

○李政恩 委員; 설문조사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반영해서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질문을 앞서 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년도 교육훈련평가분석에 의하면 81개 교육과정별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볼 때 교육만족도와 교과목만족도가 60%입니다.

그런데 60% 이하가 7개 과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규채용자 8·9급과정, 신규채용자 7급과정, 행정능력향상1과정,

또 행정능률향상2과정, 시설기술1과정, 공업기술2과정입니다.

6개 중에서 다는 내가 발표할 수 없고 시설기술1과정은 교육만족도가 38%고 교과만족도가 47%입니다. 공업기술2과정은 교육만족도가 34%고 교과만족도가 23%밖에 안 됩니다.

다를 나열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들이 특별히 낮은 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교육성고가 낮은 것은 첫째 저희들이 교과목을 짜는데 보다 더 세밀하게 수요자의 희망사항이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담당하는 교수선정에 있어서 담당하는 교수들을, 강사를 모셔올 때 조금 질이 떨어지는 강사를 모셔와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평가를 할 때 평가점수가 전기나 또 전년도보다 낮게 평가를 받으면 교육성고에 대한 부정적인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강사들 중에서 한 열네 분 정도는 작년에 한 20% 이상 부정적으로 나온 강사들을 완전히 초청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풀 명단에서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과목을 잘 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훌륭한 강사님을 모셔다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효과가 좋은데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고, 물론 학생측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 교육원 측에서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훌륭한 강사를 모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政恩 委員; 그렇다면 좋은 강사를 초빙하고 또 좋은 교과목을 선택해서 앞으로 반영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훈련성과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환류작용에 의해서 다시 교육계획을 짤 때 투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李政恩 委員;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설문조사일 겁니다.

이와 같이 평가결과를 향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서 좀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고맙습니다.

○李政恩 委員; 또 한 가지는 99년도 교육훈련실적 중에서 시민교육현황을 보면 컴퓨터교실이 190%이고 어린이환경교실이 218%로서 매우 반응이 높은 반면에 생활지방세교실이 38%, 소비자보호교실이 30%로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시민교육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다니기 좋은 과정을 확대하고 반응이 낮은 과정은 교육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원장님, 제가 비슷한 맥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환경교실하고 컴퓨터교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참여가 참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도 올렸고 우리 서초, 강남 관내 가까운 데 이런 데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교육률을 높였는데, 생활지방세과정이나 소비자교육과정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국세라면 몰라도 지방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육성과가 숫자에 있어서 대단히 저조해서 금년에는 시민교육 중에서 지방세 과정하고 소비자교육과정은 아예 뺐습니다.

이것을 빼고 어린이문화과정, 그 다음에 어린이환경교실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반, 소자본창업과정, 주택관리사보반, 정보처리기능사반, 앞으로 전향적으로 시민들의 응모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한 두 개 과정은 금년 교육계획에서 뺐습니다.

○李政恩 委員; 저조한 부분은 빼셨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지방세과정하고 소비자과정은 뺐습니다.

○李政恩 委員; 금년에 뺐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없습니다.

○李政恩 委員; 제가 비슷한 맥락에서 세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교육훈련 평가분석이라든가 설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좀더 정말 앞으로 꼭 필요적절한 교육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원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감사합니다.

○李政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鼎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趙養鎬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趙養鎬 委員; 趙養鎬 委員입니다.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299페이지 2000년도 과정별 교육훈련실적에서 공통전문교육 중견복지행정과정하고 초급복지행정과정 이것이 99년 과정별 교육훈련실적 복지행정과정1, 복지행정과정2와 같은 내용입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초급복지행정과정은 8, 9급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중견복지행정과정은 7급, 6급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99년 과정별 교육훈련 대상이 같은 거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같은 겁니다.

○趙養鎬 委員; 대상도 같고, 아마 교육내용도 같은 것 같은 데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내용은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돼서 교육이 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복지행정과정하고 복지행정과정2는 아까 우리 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7월부터 아 마.....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趙養鎬 委員; 그래서 아마 각 자치구별로 그 대상자들을 찾아서 조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일손이 달린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

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교육실적이 0%란 말이에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아직 교육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趙養鎬 委員; 아직 교육을 안했는데 어차피 교육을 하시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하고 지원하려면 이 과정이 상반기에 교육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그것에 필요한 요원 교육은 사회복지직을 신규 채용하고, 또 기존의 사회복지직들 집합교육을 公務員教育院에서 保健福祉部하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작업에는 지장 없도록 했는데 실제 그런 분들을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

○趙養鎬 委員; 네,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바쁘신 분들을 우리가 상반기에 집합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그만큼 뽑아야 됩니다.

교육받는 사람이 와 있으면 그洞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교육을 안하고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인 하반기에 교육계획을 넣게 된 것입니다.

○趙養鎬 委員; 公務員教育院長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과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부작용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치밀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조사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견복지행정과정과 초급복지행정과정에 그것까지 복지개념에 들어간다면 상반기에 교육이 필요했

던 것이 아닌가.....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면 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保健福祉部에서 10월 말까지는 교육을 시키지 말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래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에서 전부 그 이후로 넣습니다.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금년에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월 이후에 이것은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런데 99년도에도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횡수가 8·9급 1회, 중견복지행정과정 6·7급 1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횡수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99년도에도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6·7급, 8·9급 1회씩 선정한다 말이에요. 이 횡수도 지금까지 행정이 주민들, 시민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된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횡수가 99년도 1회, 2000년도 1회, 어떻게 관례적으로 1회씩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에 맞게 행정의 개념이 변화되면 변화의 속도에 맞게 교육부분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1회가 돼 있어서,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저희가 필요한 지식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생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면 보다 더 전문가로 만들 수 있

습니다만 일선 사정은 또 그렇지도 않고요.

또 일선 사정으로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합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1년에 교육인원, 교육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숫자 그런 통계상 전체에서 포션을 뒤가지고 이 부분에는 몇명, 수요조사에 의한 것을 가지고 잡니다.

그러다가 보면, 잘못 보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것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과학적인 수요조사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각 자치구의洞에 가보면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임대아파트가 속한洞에 가보면 지금 내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생활보호대상자요.

○趙養鎬 委員; 네, 생활보호대상자 1급, 2급 이런 부분, 또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하고 영세민들하고 임대아파트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싸움이 나는데 가보면 거의 생활보호대상자 1급, 2급 지원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하고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더 교육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동사무소에서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지의 개념이라든가 복지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영세민들 또는 임대아파트 주민과의 마찰을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리를 좀더 늘려봤으면 좋겠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현재로서는 저희들 교육이 확정됐

기 때문에.....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어쩔 수 없고요.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가 서울시 구청까지 포함해서 500여 명이고 그분들이 그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장애인과 함께담당을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 있는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원들도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보다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현재도 保健福祉部의 담당사무관이나 서기관을 모셔다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런 강의를 사회복지직이 아닌, 사회복지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에도 국가시책으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리고 2000년도 고급관리자과정 운영계획을 보니까 8페이지 보면 교과목 편성비 운영계획에서 보면 네번째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2000년도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6월 15일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그래서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대 중앙정부의 교류도 있겠지만 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하고 평양간의 교류라든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있고 남북교류협력법인가요, 여러 가지 제반 법률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굉장히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과목 편성에서 가칭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라든가 아니면 남북한 교류협력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는데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아주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 교육계획을 짜는데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과목 편성이나 과정설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302페이지 보면 99년 12월 29일, 2000년 5월 20일 OHP, 전동복사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어요. 수의계약인데 대략 구입단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단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아니, 질의 끝나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311페이지 보니까 통일에 대한 특강 강사들 아까 동료위원인 崔忠敏委員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노재원 교수, 박건우 전 주미대사, 황하수 서기관 등 여러 분들이 통일에 대한 특강을 하셨는데 제가 면면을 보니까 주로 행정부에 계셨던 분들, 관료분들이 통일에 대한 특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보면 국방대학의 교수분이 또 강의를 하셨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개혁작업을 하지만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아마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인 것 같은데 이전의 정부와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강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들이 물론 똑똑하시겠지만 관료입장에서 약간의 냉전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통일에 대한 특강을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통일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대북 포용정책 프로그램을 입안하셨던 분들이 특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지금 남북한 간의 상황변화가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전개돼서 저희들도 많이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들, 우리가 모실 때 박건우 대사 같은 분은 그 당시 4자회담에 대표 대사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동남아 정세나 국내 정세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해서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변화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는 훌륭한 그러한 강사를 선정해서 대학교수도 좋고 아니면 다른 전문가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 선정에.....

○趙養鎬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재원 교수나 박건우 주미대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냉전체제 속에서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홍보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셨고 통일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던 분들인데 질적인 차이에서 이전 정부하고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전 정부에서 통일에 대한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특강을 했다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새롭게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대북정책을 입안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을 수행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더 통일에 대한 특강이라든가 또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각들을 우리 고급 공무원

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면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좋은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제2건국이 강사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고, 제2건국 강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강의를 듣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시험의 출제위원 명단을 보니까 여러 대학교수, 또 여러 고등학교들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는 언제 통보를 하시나요?

시험이 예를 들면 21일에 시험이 있다고 하면.....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24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출제 의뢰하는 것은 한 두 달 반 전에 시험출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험위원이 누가 되었는지를 수험생들이 전혀 모르게, 출제위원이나 검증위원하고 쫓아다니는 실무자하고 담당계장만 알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과장도 안 가지고 있고 선정만 해 주고 나면 완전히 비밀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직 승진시험도 보안이 잘 지켜져서 깨끗이 끝났고요. 이번에도 기술직 공무원 한 40명을 승진을 시키는데 여기에 협조해 주시는 출제위원, 검증하시는 교수님들이 약 200분이 되십니다.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관리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다른 것은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교수들이 협조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하고 쫓아다니고 가서 협조도 하고 해서 위원님께 자료드린 대로 금년에는 여러 학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할 것 없이 서울의 전문가, 굉장히 명망있는 교수들 그런 분들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두 달 전에 통보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교수는 알고 있겠네요, 자기가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예를 들면 지적직 시험을 본다 그러면 부경대학 학생이 시험을 본다 하면 부경대학교수한테는 저희가 출제의뢰를 안했습니다.

그런 것 하나 하나까지 따져서 수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따져서 강원도, 충청남도까지 가면서 시험요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대학교수라든가 고등학교 선생이 자기가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학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승진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취업학원들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망을 동원해서 교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한 과목에 출제위원을 세 분을 선정합니다. 세 분을 선정하는데 한 분이 한 과목에 40문제씩 출제합니

다. 40문제를 출제하니깐 한 과목에 120문제가 됩니다. 120문제 중에서 25문제를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수가 그것을 냈다고 해서, 출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시험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확률은 1/3이라는 확률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시험위원이나 검증위원한테 먼저 서약서를 받습니다. 출제 의뢰하면서 서약서를 먼저 받고, 그래서 훌륭한 대학교수님들이 자기 명예가 중요하지 한두 문제가지고 제자들에게 또는 학원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저희가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趙養鎬 委員;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를 출제위원에 넣었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학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강생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험정보에 대해서 자기 수강생들한테 정보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출제위원들 명단을 확보해서 그 양반이 강의했던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수강생들한테 팔 수도 있고, 또 수강생들한테 알려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에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보안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안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이니까.....

하여튼 간에 OHP하고 전동복사기 2대만 단가가 굉장히 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鼎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健相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李健相 委員; 李健相 委員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할텐데 시간 관계로 요약해서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260쪽, 교육원의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종전 자체 운영할 때와 현재 민간위탁운영에 있어서 그간 원장이 보신 장.단점, 즉 평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지금 우선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일곱 분의 조리사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곱 분에 대한 봉급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예산절약이 됩니다. 예산절약이 되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李健相 委員; 아니, 원장님 말씀중에 잠깐만요.

그것보다도 전에 우리 자체 운영할 때와 지금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어느 쪽이 좋으냐 이거예요. 교육원으로 볼 때 현재 민간위탁이 좋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아무래도 교육원으로 볼 때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상으로 보아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앞으로 현대행정이 슬림화되고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健相 委員; 그러면 1년 계약인데 앞으로 기한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또다시 선정을 하겠군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8월 23일이 1년 기한입니다.

○李健相 委員; 그렇게 보면 되죠? 좋습니다.

또 263쪽에 여기 직종별 전문교육 훈련실적을 보니까 전문직에 중견토목기술과정 42명에다가 초급토목기술과정 45명 이런 것은 기술직이 다 똑같으니까 한 자리에 인원을 40명이고 이렇게 한 자리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질

의하는 요점은 여기 위에 중견관리자과정 38명, 여기에는 행정직 25명이 있는데 건축직, 토목직, 보건직, 임업직 등등 다 합쳐서 수강을 한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상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중견관리자과정은 5급인데 여기에는 건축, 토목, 여러 직종이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고시에 의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씩 해서 어느 직에 있건 행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 그런 편차가 덜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견토목기술과정하고 초급토목기술과정이.....

○李健相 委員; 말하자면 한 자리에 짬뽕해서 교육을.....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한 자리에 교육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李健相 委員; 아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이것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중견토목기술과정은.....

○李健相 委員; 중견관리자과정 38인, 맨 위에 38명인데 이것이 25,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 한 자리에서 수강을 받아도 되느냐 이겁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생활을 장기적으로 한 사람, 적어도 한 15년 내지 20년씩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직종이건 함께 교육을 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교육진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중견토목기술과정하고 초급토목기술과정

이 다같은 토목기술과정인데 이것을 하나로 함께 교육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초급은 대개 9급 또는 8급, 그 다음에 중견과정은 같은 토목직이라도 6급, 7급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6급, 7급 중견과정은.....

○李健相 委員; 여기 보니까 이것은 따로 따로 이것은 했네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따로 따로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 경력이나 실력의 차이가 월등하기 때문에, 전문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초급과 중급.....

○李健相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290쪽에 시청각 기자재 실태인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다 양호한데 4점이 노후로 인해서 불용대상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VTR BATA 이것이 두 대, 또 비디오 프로젝터가 여섯 대 중에 다섯 대는 양호하고 한 대가 불용대상이고, 또 비디오카메라 녀 점이 지금 기자재로써는 아주 노후가 된 것으로 여기 일람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업무보고 20쪽에 4점에 4,200만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금년도 예산인데.....

○李健相 委員; 그것을 대치하면 시청각 기자재는 100% 양호한 것으로 본다 해도 되는 거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아까 우리 趙養鎬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구매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호하게 되겠습니다.

○李健相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을 볼 것 같으면 교육훈련총괄 맨 밑에 민간인 교육에 대해서 1,210명 중에 현재 89명 마쳤는데

이 민간인 교육은 어디서 선임하고 선정하는 것입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반사회보 같은 데 게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교육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李健相 委員; 좋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근무지 출장교육 실시에 있어서 아까 우리 원장께서 建設安全管理本部에 현장교육장으로 나간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좋지 않은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세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근무지 출장교육을 한 목적은 建設安全管理本部의 직원들이나 다른 토목부서나 건축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해 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승진에서 좋은 평가점수가 없기 때문에.....

○李健相 委員; 그래서 강사가 현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평가결과는 어땠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교육을 한 다음에 늦은 저녁 6시 넘어서, 5시에 교육이 끝나니까 5시부터 사무실에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민원처리를 하고 행정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출장교육 계획을 세운 겁니다.

○李健相 委員; 그렇게 해 보니까 어때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그렇게 해 보니까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민원인이 와 있고 급한데 그 직원이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중에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업무를 주고 그런 경우가 있고, 建設安全管理本部에 있는 강당이 원래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책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교육환경도 안 맞고, 교육을 받다가 업무를 해야 하고 하니까 교육대상자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내

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李健相 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20쪽, 수목 식재 여기를 조금 더 말씀해주세요. 거기에 옥외 화장실 개수, 주차구획선 표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수목 식재에 대해서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저희 교육원은 부지가 8만 5,000평이 됩니다. 녹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에서부터 교육원 현관까지 플라타너스 나무가 예쁘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나무들 열매에서 나오는 날라다니는 것들이 교육할 때 교실에 흘러들어오고 눈병도 유발하고 교육생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자목이 될 수 있는 느티나무 15년생 67주를 올라가는 정문 안쪽에 죽 심어 놨습니다.

○李健相 委員; 바꾼다 이거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앞으로 그 느티나무가 한 10여 년 되면 성장목이 돼 가지고 그늘을 충분히 덮을 수 있을 때 그 때 플라타너스 나무를 연차적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 내에도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느티나무 군락지를 만들 어서.....

○李健相 委員; 식목을 해 놨다는 거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식목을 해 놨습니다.

○李健相 委員; 앞으로 장기간을 보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100년, 200년 앞을 보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李健相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고맙습니다.

○委員長 呂鼎九; 수고하셨습니다.

申垞植 委員 질의하여 주세요.

○申垞植 委員;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은 점수가 나오는데 면접시험의 점수는 어느 정도 부과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면접점수는 만점이 15점으로 돼있고요.

○申垞植 委員; 총 몇 점 만점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총 만점이 15점 만점입니다.

○申垞植 委員; 아니, 시험문제가 몇 점이에요?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전체 시험은 객관식 시험하고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申垞植 委員; 그러면 면접시험의 점수가,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면접시험 퍼센트는 따로 없고요.....

○申垞植 委員; 총 100점이라 한다면 면접시험이 15점이면 15% 아니요?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그것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의해서 일단 1차 합격자를 해 놓고요. 1차 합격자 중에서.....

○申垞植 委員; 1차에 130%를 뽑는다면서요?

○公務員敎育院長 南相宇; 네, 1차 130%를 뽑아서 15점 만점의 면접시험을 봐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9점 이하로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이 없는 것으로.....

○申垞植 委員; 면접시험이 3인 1조라고 그랬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申垞植 委員; 그런데 과반이 9점 이하로 했을 때는 아웃된다는 그 말입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아무리 시험을 잘 봤어도 아웃이 됩니다.

○申垞植 委員; 이 면접시험 일자를 정하고 나서 면접시험관을 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면접시험일자는 원래 시험공고 할 때 다 공고가 됩니다.

○申垞植 委員; 그러면 면접위원을 언제 위촉합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면접시험위원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교 교수님으로 하고, 두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하는데 대학교수분들은 훌륭한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천거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서울시 인사과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4급 한 명, 5급 한 명, 그리고 대학교수 해 가지고 3인 1조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 1차 시험 합격한 바로 다음에 합니다.

○申垞植 委員; 그러면 면접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겠네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申垞植 委員; 아까 말대로 120 대 1의 등락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면접위원 스스로 내가 면접시험위원이라고 밝혀 가지고, 아니 시험본 사람한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라면 동료교수한테 밝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커피를 한 잔 하면서 밝힐 수가 있고 그것이 퍼지고 퍼져

서 나갈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20 대 1의 치열한 경쟁이니까, 그래 가지고 명단이 유출돼서 그것이 시험본 사람 귀에까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우리 申委員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실질적으로.....

○申垞植 委員; 그러면 이번에 120 대 1의 시험이었다면, 그 사람들 7월 23일 시험봐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미리 공고를 다 했 다니니까, 총 응시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1만 3,000명.....

○申垞植 委員; 1만 3,000명은 3인 1조로 하면 몇 개조를 만드는데 거예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최종 합격자 285명인데 1.3배를 뽑으니까 한 310명쯤 뽑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커트라인이 동일 점수일 때는 1.3배도 되고 1.4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조를 25명씩 짜서 하기 때문에, 12개 내지 15개 조가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설령 부탁한 사람이 해도 어디 소속되는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면접시험위원회도 보안을 철저히 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조편성은 조를 편성해 놓고 교수님들을 A, B, C로 해 가지고 B가 1조가 되고 C가 5조를 맡고 이렇게 막 섞어서 제가 시험보는 날 아침에 선정해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부정이 개입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申垞植 委員; 네, 잘 하세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하죠? 정신교육을 하는데 非常企劃官 심의를 할 때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한데 버스전용차선이나 주차위반이나 또 과적차량이나 단속의 권한은 없어요. 공무원의 보조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과적차량 눈감아주고 돈 받고 해서 어린애들이 구속되고 전과자 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없으면 주차위반 스티커 못 줍니다. 버스전용차선도 마찬가지로인데 사실상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 주고 받고 하다가 애가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한다니까 그런 것을 강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소송실무과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교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겠네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申垞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鼎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金永俊 委員 말씀하세요.

○金永俊 委員; 17페이지, 이것이 소위 지방자치시대의 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래서 묻습니다.

승진시험에 있어서 작년의 예겠죠?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아니, 금년도 계획입니다.

○金永俊 委員; 그렇습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작년에는 승진시험을 보지 않고 금년 처음에 행정직.....

○金永俊 委員; 선발예정인원 100명, 그래서 합격인원이 68

명인데 나머지 32명은 어쨌다는 거예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이것은 기술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金永俊 委員; 6급에서 5급으로의 특별승진시험인데 선발 예정인원 100명에 대해서 응시자가 231명입니까?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네.

○金永俊 委員; 그러면 68명밖에 합격을 안했다는 얘기는 32명이 과락이라는 말이에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과락된 사람도 있고 과락 내지는 성적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金永俊 委員; 바로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5급 사무관이라는 소위 중간 관리자는 지금 똑같은 시험에 합격하려면 실력과 자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녁에 밤을 새고 실력을 갖춰야 될 사람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구청장 앞에서 손 비빈 사람, 술 사준 사람, 그 이상 더 심한 얘기는 안하겠어.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니까, 근평을 쥐 놓으니까 도대체 사무관으로서, 대한민국 5급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자질과 능력이 못 된 사람을 골라 보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원장은 수시로 간부회의 때 서울市長한테 참으로 시험으로 어느 지위에 가면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야지 아무나 가서 한다, 그러면 어쨌란 얘기에요? 이것이 민주사회,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폐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5급 공무원 사무관 정도 되려면 최소한도 국사를 안다거나 한국사를 안다거나 세계사를 안다거나 법도

최소한도, 지금 여기 사무관들 다 계실 텐데 대단히 미안하지
만 여기 고시 나온 사람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계세요?

○公務員教育院長 南相宇; 교육원에 고시 출신이 3명인데
요.....

○金永俊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고 고시가 훌륭하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특별채용이 이렇게 폐해가 많아요.

이 사람이 사무관에 가서 어떻게 자기 직원들을 다룰 것이
며 어떻게 민원요구며 법해석을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이것
을 얘기해야 돼, 이것을.

이런 것 하나 잘못된 것을, 시험의 당위성이 그쪽에서부터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까놓고 얘기해서 서울 25개 구청에서
못 된 구청장들이 이러는 거예요. 쓸만한 구청장은 시험으로
봐. 이런 것을 교육을 해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
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육을 아까 李健相 委員님도 말씀했는데 교육은
근무의 연장이예요. 어떻게 교육이에요? 능률과 혁신, 개혁
이것을 요구해서 교육은 충전을 하는 것인데, 근무의 연장이
지 무슨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최대한 우리가 밀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아주 중요시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委員長 呂鼎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

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말은 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 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7時 27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呂鼎九 金成浩 李政恩 金光洙

金永俊 金種求 宋台京 申垆植

李健相 趙養鎬 崔忠敏 李喆鎬

韓春子

○專門委員

金宗植

○被監査機關參席者

公務員教育院

院長 南相宇

教育企劃課長 崔鍾協

企劃1팀長 崔瑢煥